

포스트모더니즘이후 여성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 빈곤주의를 중심으로 -

현 지 연*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패션은 일견 가장 무질서하고 파편화되어 있고,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그러나 패션은 환경의 흐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문화의 단면을 나타내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내포하는 20세기 후반의 방대한 지적·문화적 움직임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미약하나마 본 논문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를 이해하고, 여성 패션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패션 경향을 빈곤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지적 풍토를 살펴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겨났고,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지적 총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포스트모던’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각 분야별로 시기가 다르다. 문학에 있어서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어빙 호우(Irving Howe)와 해리 레빈(Harry Levin)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한 모더니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60년대에 이르러 이합 핫산(Ihab Hassan)과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문학, 건축, 무용, 회화,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미디어의 시대로 도약함에 따라 패션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갔다. 오늘날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기존의 사고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도 보여 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근원은 후기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과, 문화의 중심개념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나타난 패션 경향을 혼성모방, 안티패션의 대중화, 신 복고, 신 자연주의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1. 혼성모방 패션은 다양한 장르의 혼합 및 붕괴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패션의 특성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재,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경계 붕괴, 부와 과시적 빈곤의 혼용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결합 및 융합된 양식 등이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개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혼성모방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저항 현상으로 탈문화를 의미하며, 현대 패션의 특징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2. 현대패션은 거리 젊은이들의 패션과 스타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하고 파격적인 새로운 스타일이 대중화되고 있다. 2차대전이후 탄생된 청소년 하위문화는 도시화된 사회구조 속

* Corresponding author: jylady@hanmir.com

에서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좌절, 불안, 무관심을 표명했고,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서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탈행동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3. 미래와 과거 즉, 전통의 분류는 현대패션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주제로 이것은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 과거에서 미래로 이르는 통로, 과거에서 현대, 에스닉한 것에서 현대적인 것에 이르는 강조점을 두고 있다. 현대패션에 있어서 신 복고의 주된 경향은 과거의 복고와 원시적 회귀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초현대적 세련미와 클래식의 정통성이 혼합된 복합적 요소들이 개성미와 절제된 복고풍의 고전미를 동시에 표출하는 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4.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 자연주의(new-naturalism)는 결국은 총괄적인 에콜로지의 한 양상으로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고,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순수성과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의 추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패션에 나타난 빈곤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나는 형태 구성상의 표현방법의 하나로 빈곤은 외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버리고,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요소인 패치워크, 탈색 및 염색, 페이딩, 프린징, 미완성과 핸드메이드를 선택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부의 상징이었던 복식의 고정관념을 버린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유행되었던 블루진은 기성가치관에 대한 반항과 젊음, 자유의 심벌로서 받아들여져 깨끗한 양복, 흰 셔츠, 단정한 넥타이로 대변되는 지배 계층 즉, 기존 세력에 대한 돌출 세력의 저항을 의미하였다. 1990년대의 세계적인 불황은 복식에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화려함을 피하는 경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빈곤적 표현은 좋은 취미와 나쁜 취미, 하이패션과 거리 패션, 패션과 반 패션이라는 전통적인 복식미, 서구 중심주의 등의 위계 구조를 해체시키고, 탈장르, 탈중화 된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형태구성상의 표현방법의 하나인 빈곤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패션은 혼돈의 패션 출현이며, 1990년대의 패션은 20세기에 이후 보여주었던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 아닌 그동안의 여러 요소들을 시대의 구분을 막론하고 완전한 실루엣이나 색다른 유형의 멋진 조화로움을 이끌어내며, 어지러움 속에서 찾아지는 또 다른 모더니즘의 연출을 맛보여 주고 있다.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중점적으로 각 개인의 다양한 표현 창출을 기대함으로써 패션을 통한 인간내면 정신의 표출화가 진실되게 표현되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라고 볼 수 있다.